

2019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젠더 이슈가 뉴스에 등장하기까지>

집담회 녹취록

사회 : 김명혜 동의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발제 : 문미진 문화다양성리터러시젠더모니터팀, 김유진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차장

토론 : 윤과란 부산MBC 기자, 이이슬 KBS부산 기자, 김상진 KNN 기자협회장, 조봉권 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윤여진 부산일보 여기자회장, 엄정민 KBS부산 PD, 지미 부산퀴어 문화축제 홍보팀, 성현지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김유진(부산민언련 사무차장/ 문화다양성리터러시 총괄)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민주언론시민연합에 사무차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저희 부산 민언련이 주로 언론 보도 모니터링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는 다양성 모니터를 시도해봤습니다. 모든 항목을 다할 수는 없지만, 젠더, 이주민, 정신장애 이슈로 부산 문화재단과 함께 부산 문화 다양성 리터러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오늘은 젠더 이슈를 부산 지역 언론이 어떻게 보도했는지 모니터링한 결과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모니터 결과만 발표하는 것보다, 사실 지면에 뉴스가 나오기까지 그 이전에 보도국 내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 그리고 젠더 이슈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앞으로 더 감수성을 높여서 노출되려면 어떤 방안이 있을지를 의논해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어렵게 각 사의 기자님들과 pd님을 모셨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저희가 박수를 좀 많이 쳐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주제로 선뜻 토론회나 집담회에 공개적으로 와서 얘기를 좀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을 때 쉽지는 않으셨을 거 같아요.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서 회사의 대표로 참석을 해주시겠다고 한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각사에서 가장 젠더 감수성에 대해 관심이 많고, 감수성 높으신 분들이 오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뒤에 있는 토론회, 집담회는 지면에 드러난 거, 드러나지 않은 거까지 조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평소에 저희 말고도 이런 젠더 이슈 가지고 모니터링을 진행하시는 단체가 있더라고요, 저희 말고 모니터링을 진행하신 경험이 있으신 여성 단체 회원분들, 그다음에 페미니스트 동아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이 토론회 홍보 문자를 보내고 많은 분들이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통 홍보 문자 보내면 답은 안 오거든요? 그런데 문자를 보내시고 '참가하겠습니다.'라고 답장을 보내신 분이 대 여섯 분, 그리고 문자는 안 주셨지만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분들은 지금 도착을 하고 계시는데요, 신문기자 두 분은 신문사 특성상 기사를 마감하고 편집일을 끝내고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늦으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뒤에 토론회 하실 때쯤 도착하실 거 같아요. 그리고 오늘 토론회 사회는 동의대 김명혜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토론회 시작 전에 먼저 젠더 모니터 팀이 발표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부산 민언련에 대표님 인사 듣고 가지겠습니다.

복성경(부산민언련 대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집담회를 준비한 부산 민언련 대표 복성경이고요, 사실 젠더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꼭 보도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실제 조직 내부에 여러 가지 시스템일 수도 있겠다는 고민까지 저희가 이어져서 뭔가 조금 터놓고 다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언론사에 많은 분도 오셨고, 실제로 저도 오늘 하다 보니 국장급인 분들과 인사를 할 기회가 하루종일 많이 있었는데 이 집담회를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에 누가 가지, 라고 말씀하셔서 아 관심이 남다르구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오늘 서울에서는 저희랑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서울 민언련에서 성유보 민주 언론상이라고 특별히 민주 언론을 위해서 애쓰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의 뜻을 기리기 위해서 시상을 하는데요, 올해 굉장히 시사점 있는 수상자가 선정되었습니다. 대전MBC의 유지은 아나운서라고, 여성 아나운서인데요, 이분이 채용에서부터 처우에 이르기까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너무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 여성 언론인들이 스스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는 사례를 사실 공개적으로 잘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유지은 아나운서님은 끊임없이 투쟁하고 이 문제를 공론화하면서, 언론계에서는 핫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것을 계기로 우리 사회 전 어떤 영역에서 젠더와 관계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부산에서는 집담회가 열리게 되어서, 민언련 한 관계자로 너무 뜻깊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 와계신 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눠서, 앞으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또 한걸음 전진하는데 이 토론회가 의미 있는 작용하기를 바랍니다.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반갑습니다.

김유진(부산민언련 사무차장) 네, 그러면 먼저 젠더 모니터팀 결과 보고를 말씀드린 이후에 토론을 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젠더 모니터팀의 문미진 씨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 모니터링

문미진(문화다양성리터러시 젠더모니터팀) 네 반갑습니다, 저는 문화다양성 리터러시 모니터 젠더팀의 문미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모니터팀은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페미니즘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대학생, 여성학이나 신문방송학을 공부하고 있는 대학원생, 그리고 여성인권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와 함께 모니터링을 진행했구요. 저희는 지역 언론이 젠더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모니터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요 그 한국 여성 정책 연구원에서 청와대 청원글 중에서 젠더 이슈를 분석한 글인데요. 청와대 청원에서 20만 이상을 돌파하면 답변을 하게 되어있잖아요? 그런데 답변을 한 청원에 40%가 젠더 이슈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요즘 사람들은 억울한 일이 있으면 이야기하고 싶은데 젠더 이슈에 대해서 억울함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사람들이 이렇게 젠더 이슈에 관심이 많고, 뭔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많은데 지역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을까가 궁금했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지역의 젠더이슈와 2019년 상반기 동안 좀 의미 있었다고 생각한 젠더이슈 5개를 뽑아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진 스쿨미투였고요, 두 번째는 4월에 있었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그리고 세 번째는 부산에서 올해 열리지 못한 해운대 쿨어 문화 축제, 그리고 네 번째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마지막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봤습니다. 젠더 이슈라고 하면 여성 대상 폭력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책 32페이지부터는 여성 대상 폭력을 주요하

게 분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슈 하나로는 묶이진 않지만, 보도 전반에서 보이는 젠더 별 차별을 저희가 뽑아서 차이를 적어본 글이니까 돌아가셔서 읽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제는 젠더 이슈 5개에 대한 모니터 보고서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쿨미투입니다. 스쿨미투를 여성 대상 폭력에서 분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논의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스쿨 미투에 주목한 이유는 미투는 피해자가 발화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성폭력 이슈와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언론들이 피해자의 발화에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가? 그걸 좀 보고 싶었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주요하게 뽑아낸 신문 기사, 방송 기사인데 노란색으로 표시해놓은 게 경찰의 수사 결과나 사법부의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발화에서 나온 스쿨 미투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찰이 어떻게 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에 치우치고 있었습니다. 그럼 피해자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을까를 봤을 때 피해자의 발언은, 사법부의 판결은 엄청 확실한 사건이 되는데 피해자의 발언은 뭐 혐의 없음을 판결 받았다, 학생의 일방적인 의견만을 듣고 과도한 징계를 행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발화를 일반적인 의견 정도라고 이야기하거나, 이게 국제신문 사설인데요, 주장이 제기되었다,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학생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파장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이 사설 같은 경우는 스쿨미투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놀란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주장을 놀라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식으로 보도하고 있어서 피해자의 주체적인 발화가 여전히 의심의 여지가 있다는 것으로 다루지고 있었습니다. 어 저희가 이걸 넣을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사실 신문 기사라고 하면 기사가 작성한 것만 신문 기사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부산일보에 실린 짧은 소설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K 여고에 변태선생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건데 이게 저희가 오늘 젠더 이슈가 뉴스에 등장하기까지라는 슬로건으로 하고 있지만 이런 한 소설가의 소설이 신문 지면의 성차별적인 요소가 가득한 소설이 계속 실리고 있는데 이게 데스크에서 제재가 없다 이런 것도 저희는 좀 문제라고 봤거든요, 그래서 기사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신문 지면 전체에서도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소설을 넣었습니다.

다음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인데요, 낙태죄 헌법 불합치 같은 경우는 올해 4월 11일에 판결이 있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었다고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지역 언론은 낙태죄 헌법 불합치를 어떻게 보도했는가를 보고 싶었는데, 보시면 2월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낙태와 관련한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낙태를 한 이유도 물어보고 낙태를 했을 시에 혼인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나아가서는 4월에 있을 낙태 헌법 불합치 판결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낙태와 관련한 정책이 어떤 것이 필요하고, 있었으면 좋겠느냐도 물어봤는데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에 실린 글은 학업 사회 활동 지장 이유로 임신 여성 5명 중 1명 낙태 그니까 그 보도 자료에는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기사에서 나온 것은 여성들이 학업을 이유로 낙태를 한다. 이거에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보도자료를 토대로 한겨레 같은 경우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사설을 쓰고 4월에서 어떤 판결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키는 등의 보도를 하면서 낙태 이슈에 대해 지역 언론보다는 관심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4월 11일에 판결이 난 다음에 보시면 페이지는 14페이지인데요, 판결이 난 다음 날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1면 탑에도 걸렸고, 3면에서도 두 기사를 싣고, 사설로도 기사를 냈거든요.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이야기되는 것은 페이지 15페이지를 보시면 나오는데 여타 언론들은 헌법 불합치 의견을 낸 재판관 입장을 굉장히 주목해서 보도했습니다. 이 재판관들은 기존의 낙태 이슈를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 대립으로만 바라봤는데 재판관들은 그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이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을 냈어요. 기존의 낙태 이슈에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인식의 틀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은 여전히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여전히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인권을 대립하는 것으로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12주 전에는 여성의 인권이 더 강하고, 그 이후에는 태아의 생명권이 더 강하고. 이런 식으로 두 인권을 대립하는 관계로 놓으면서 3면 하단에 보시면 여전히 낙태죄 이슈를 의료계는 참여하고 중국에는 반발한다. 여전히 갈등 구도를 보이고 있었다. 낙태죄 헌법 불일치 같은 경우는 여론 조사도 굉장히 많이 했고 여성들의 시위도 적극적으로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언론은 여전히 십몇 년 전의 인식 틀을 가지고 와서 보도하고 있는 행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부산 퀴어 문화 축제인데요, 부산 퀴어 문화 축제를 보시면 부산에서는 2017년부터 부산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3회 부산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것으로 예상은 했었는데, 하지만 해운대 구청의 불허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산일보와 국제신문이 올해 초의 첫 번째로 했던 기획이 혐오를 없애자는 기획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보면 성 소수자도 우리의 이웃이다, 성 소수자, 퀴어문화 축제 열려야 한다는 식으로 기획 기사를 냈는데 국제신문 같은 경우는 이 기사가 1월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1월 28일에 보면 목사님 인터뷰가 실려요. 차별금지법 제정 못 하는 데 힘을 쓰겠다는 목사님의 인터뷰를 싣고, 부산일보도 보면 여기 지적하고 있는 게 tv나 예능 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를 개그로 사용하는 것을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지면에서는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사용한 성 소수자 이슈를 뽑아내서 기사를 내서 생성하고 있었거든요, 해서 저희가 젠더 이슈를 모니터링하면서 느낀 것은 기획 기사를 통해서 성 소수자를 차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지만, 실제 지면에서는 그게 이어지지 못하고, 지면 일부에서, 목사님 인터뷰인데 그건 우리의 의견이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신문은 기사 지면 전체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한 이슈였습니다. 보시면 해운대 퀴어 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올해는 경남 퀴어 문화축제도 첫 번째로 열렸는데도 이 기사를 모니터링해보면 퀴어문화축제 이전에는 충돌을 예상해요, 지역의 뜨거운 감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축제가 끝나면 충돌은 없었다. 이거의 무한 반복인 거예요. 충돌 예상하고 없었다는 끝없는 반복이다. 그러니까 해운대 퀴어 문화 축제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는 하지 못하고 충돌을 예상하고 충돌은 없었다고만 논의만 하고 끝나고 있어서 굉장히 아쉬운 이슈였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관련한 이슈인데요, 부산에서는 지금 해운대 609에 이어서 완월동도 폐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지금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게 성매매 집결지 폐쇄 이슈가 여성 인권, 젠더 이슈로 다뤄지기 보다는 도시 재생의 이슈로 다뤄진다. 우리가 보기에 안 좋으니까 성매매 집결지가 없어야 한다지, 이 성매매 집결지가 있어서 여성의 인권이 하락하고 있어서 없애야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보시면 여기서도 부동산 대표를 인터뷰한다거나, 이전의 '609'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짓고, 감전동은 주택을 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완월동에는 뭘 지으면 좋을까 하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 부산일보가 7월에는 수동적으로 보도를 했는데 9월부터는 본격적인 기획 보도를 내놓습니다. 이 기획 보도의 처음인데요, 사실 저는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기자가 기사를 취재하면서 생각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기획 기사의 첫 기사인데 보면 업소 앞 지나가는 차량 보닛 잡으며 삼촌, 호객 행위 그대로. 그러니까 이게 여성의 성 상품화를 그대로 헤드라인으로 내놓은 굉장히 나쁜 보도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201호로 가세요.' 라던지. 그러니까 본질과 관련 없이 성매매 집결지를 뭇가 호기심으로 바라보는 듯한 뉘앙스를 계속 풍기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이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과

거에서부터 현재 미래까지 조망하면서 점점 더 나아지는 보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보도는 전주 선미촌에 가서 취재한 보도였는데 굉장히 완월동 성매매 집결지에서도 어떻게 하면 공공개발을 이룰 수 있을かの 논의로 이어지는 굉장히 좋은 보도로 끝났습니다.

마지막은 일본군 위안부 관련 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이게 꼭 지역 언론만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데. 일본군 위안부 보도는 젠더 이슈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민족적 이슈이고, 일본을 향해서 화를 내고 싶은데 그 화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장치로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일본군 위안부 기사는 특별히 키워드 네트워크를 실었는데요, 보시면 키워드 네트워크에 등장하는 게 미국, 중국, 인도, 일본 이런 식으로 국제 정치적 이슈로만 다뤄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관련이 있는 걸 보면 초량동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소녀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소녀상을 지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지어서 일본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이걸 일본이 막으면 일본에 어떻게 화를 낼 것인가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사를 보시면 보도가 진짜 없었는데 보통 보도들도 뭐가 보도되냐면 소녀상을 성적으로 모욕한 경우, 침을 뱉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보도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좀 두서없었죠? 두서없었는데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보도는 패널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혜(사회) 두서없다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모니터링을 잘 하고, 읽으면서도 오랫동안 많은 수고를 했겠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전히 우리가 꼭 거론하고 넘어가야 할 이슈 중에서 가장 그동안의 빛을 보지 못했던 이슈가 젠더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 게 얼마 되지 않았죠? 여러분, 여성이 19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대학을 못 가던 곳도 많았고, 우리나라도 물론 그랬고, 우리가 여성이 정말 정식으로 교육을 받게 된 것이 20세기 들어서, 조금씩 가게 됐고. 1980년대만 해도 <아들과 딸> 드라마 혹시 기억 나십니까? 거기에 보면 아들은 대학교 보내고, 쌍둥이 딸은 아들의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는 직업 전선에 나가야 하고, 사실은 60년대, 70년대 여성분들이 그렇게 공장에 가서 생계에 가서 같은 남자 형제들의 학업에 많은 뒷받침이 됐었다. 그런 시점에서 볼 때 젠더라는 것이 옛날의 관점에서 보면 옛날 사람들이 요즘 여성들이 막 불만족하고 불평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 하십니다. 사실 저도 옛날 사람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엄청 좋았는데 뭐가 문제야 이거죠.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그런 거 같아요. 우리가 과거의 여성과 현재의 여성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현재 동시대를 사는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야지, 과거의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여성과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과 비교해서 지금 너희는 교육의 혜택도 봤는데 ‘뭐가 문제야’라면 그런 질문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한가지 젠더 이슈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이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있고, 여성들은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소하려고 노력하는데 남성분들은 여성의 문제로만 치부하고, 나는 가해자가 아니고, 무관심, “이 정도면 괜찮은 남성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남성들이 오히려 페미니스트가 되어야지만 사회가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제가 느낀 점을 이야기했고요. 이제 패널 보도를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부산민언련 사무차장) 저희가 신문 기사가 앞에 주로 나오긴 했지만, 방송은 주요 저녁에 나오는 메인뉴스와 지역 방송사에서 자체 제작하는 시사 프로그램 6개를 좀 봤습니다. KBS 부산은 K 토크와 시사합시다, 수요반점을 봤고요. 부산 MBC는 시사포커스랑 빅병커를 봤고요 KNN에서는 파워토크랑 KNN 뉴스아이를 좀 봤습니다. 패널이 어떻게 나오는지 먼저 봤고 일단 뉴스는 봐두고 시사프로그램에

서 패널을 봤습니다. 성별만 일단 보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전체 인터뷰의 하고 패널을 합쳐서 남성이 등장하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남성 76% 여성은 22%였습니다. 남녀 숫자를 보자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전체 한 1700 정도 되는데 이 1700이 중복으로 나온 사람은 다 중복을 그냥 합산했습니다. 1700 중에 남자가 많죠. 요렇게 보이고요, 왼쪽이 남성,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직업을 분석해봤어요, 패널은 스튜디오에 나오는 경우입니다. 스튜디오에 출현하는 출연자, 인터뷰에는 자료화면 VCR에서 돌아오는 경우인데 남성 패널은 교수학자가 최고 많았고 그다음에 정치인 그다음에 시민입니다. 시민은 일반 주민이나 거리인터뷰 식으로 나올 때, 이슈관계자로 나올 때를 이야기합니다. 여성은 그냥 시민으로 나올 때가 가장 많았어요. 직업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의견을 내는 한 사람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시민단체이다. 변호사는 주로 이제 패널로 등장할 때가 많았고 중복으로 채택된 경우가 많았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변호사가 다양하게 등장하기 보다 주로 방송에 나오는 변호사가 중복으로 등장을 해서 횟수가 올라간 거 같습니다. 조금 특이한 점은 시민 단체를 대표해서는 여성이 많이 나온다는 점이었습니다. 역시 직업별로 봤을 때 남성은 교수, 학자가 많죠. 그리고 여성은 시민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직업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 저희가 프로그램별로 떼서 봤습니다. k 토크나 시사포커스, 그다음에 파워토크 같은 경우에는 메인 진행자가 1명이 있고 스튜디오에 1명 내지는 2명이 출연을 해서 대화를 나누는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량감 있는 인물이 초청 받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K토크> 같은 경우는 여성 패널이 10번 그리고 남성 패널이 78번 초대가 되었는데요, 이 여성 패널 같은 경우에는 10명이지만 사무차장님 3번, 환경련 사무차장님이 2번을 출연하셨기 때문에 세보면 10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변호사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민 단체 대표가 출연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남성 패널은 지자체 단체장, 공무원, 기업인, ceo, 교수, 학자. 정치인 이렇게 출연을 했었죠.

KNN <파워토크>는 여성 패널은 4명이었습니다. 이때 BMK가 여성프로농구단을 창단했거든요, 농구선수라든지, 지역의 문화 축제를 준비하는 문화 체육 예술인, 그 이외에 정치인과 단체장이었습니다. 각각 1명이 나왔고요, 남성 패널은 마찬가지로 직업이 좀 사회에 저명하신 인사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시사포커스>입니다. 여성 패널은 9명입니다. 시민단체 활동가가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남성 패널은 세 방송사가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KNN 송준우의 시사만사> 같은 경우에는 패널을 굉장히 많이 초청을 하거든요. 왜냐면 프로그램 하나에 코너가 3개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코너마다 패널을 달리 하기때문에 연인원이 굉장히 많을 수 있는데요 여성 패널은 29명, 남성 패널은 105명이었는데 저희가 이거 세면서 조금 재미있었던 게 엑셀 표를 비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성으로 클릭하면 몇 명이 없습니다. 한 눈에 딱 보여지는데. 남성으로 클릭하는 순간 김 씨까지 썼을 때 벌써 24명이었고, 뒤에 쪽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한 인물이 초청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MBC 빅명커> 같은 경우는 패널을 초청하는 비율은 적습니다. 기본 패널이 있고 이슈마다 해당 이슈와 연관되어 있는 활동가를 1명 정도 초청을 하거든요. 여성 3명, 남성 패널 8명이었습니다. 이건 중복을 삭제해서 명수만 썼을 때 이렇습니다. 패널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혜(사회) 여기서 여성과 남성의 출연 비중에서 보시다시피 남성이 절대적으로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대충 보면 여성이 과소재현되고 있다. 내지는 발언권의 기회가 적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만화영화나 어린이 프로그램에서도 거의 성비

가 4대1 정도로 고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본 건 제 기억에 남는 건 독수리 오형제, 남자 5에 여자 1로 꼭 그런 조합으로 나오니다. 4대 1 정도의 어떤 비중이 나오죠. 여성이 절대적으로 과소재현 되고 있다는 것을 패널들의 숫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패널은 왜곡이 더 심한 거 같습니다. 8명에 거의 95명, 10대 1정도 되는 그런 밸런스가 안 맞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젠더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시사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젠더모니터 팀에서, 저희에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선 저희가 언론계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스쿨 미투에 관련한 이야기도 나오고, 퀴어문화축제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부산스쿨페미니즘 연합의 성현지님께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시고, 활동을 하시면서 느꼈던 미디어 보도에 대한 불만,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점들을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현지(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 안녕하세요, 저는 스쿨미투, 페미니즘, 젠더에 대해 인권운동을 진행하고 있고,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에서 부산지역 스쿨미투 운동과 연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은 부산지역에서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청소년 당사자들이 모여, 청소년 페미니즘 활동,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로 부산 성폭력 상담소와 동래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활동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스쿨미투, 젠더와 같은 인권 이야기는 언론에서 이슈로 올라오기 전인, 2년 전까지는 언론에서 미투·젠더 단어는 보기 힘들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에서 열리는 퀴어 축제, 미투 운동 등이 활발해지면서 언론에서 젠더이슈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만큼 언론은 당사자들이 퀴어 축제나 미투를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스쿨미투와 젠더에 관해서 무관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저는 스쿨미투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육청 감사·경찰의 수사, 즉 사법체계, 처벌 여부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요. 부산스쿨페미니즘연합이 발표한 성명서 <“#School_Me_too에서 #School_Feminism으로” 우리는 성 평등한 학교를 원한다!>라는 성명서 안에는 교육청에 바라는 11가지의 요구사항이 들어있어요. 단순히 가해자 처벌만이 전부가 아니고, 교칙 개정과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등 학교 내 성평등 문화 구축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요. 하지만 언론 보도는 교육청 감사, 경찰의 수사, 처벌 여부에 맞춰져 있어요. 앞서 패널이 말씀하셨듯이 책 5페이지와 7페이지 칸 안에 보면 교육청 감사의 말이 나오니다.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처벌이 됐는지 안됐는지 그런 데에만 집중이 되어있어요. 왜 이 수사를 못 했는지, 혹은 경찰의 수사 과정, 가해자에게 주어진 처벌 여부 등의 위주로 적혀져 있더라고요. 피해자가 어떠한 요구를 했고, 피해자를 연대하고 보호하는 단체나 활동가들에게서 나온 이야기는 언론에 나오기 힘들거나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저 사법체계의 이야기 스쿨미투에 대한 의심이 싹틔워졌고, 피해자 발언의 신빙성을 의심하게끔 유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성범죄 피해 입증과 한계, 수사의 어려움 등 처벌에만 초점을 맞춘 언론은 또다시 사법부에게 성범죄 성립 여부에 대한 모든 권한을 돌려준 셈이라는 보조자료의 이야기 도 저는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쓰임에 따라 스쿨미투가 회화화되고 있어요. 언론 보도에서부터 스쿨미투를 야한 이야기, 변태 선생님 등으로 가볍게 표현되니까 실제로 학교에서도 스쿨미투를 마치 가벼운 일인 것처럼 여겨져요. 그리고 가해 교사는 죄책감 없이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아요. 또 스쿨미투를 발화한 당사자가 누군지, 그 사람 때문에 학교생활과 진도 나가는 부분에 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다수의 학생이 여기게 되었고, 그렇게 스쿨미투는 묻혀 왔다고 생각해요. 스쿨미투는 학교에서 일어난 성폭력임을 알리는

운동인데 가볍게 여겨지고 있는 등의 모습은 평소 미투에 대해 보도할 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저도 이게 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에도 불만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로 학교에서는 인터뷰 한 사람을 색출하려고 해요. 부산의 스쿨미투 사건 중 하나인, S여고를 언급하고자 해요. S여고 공론화한 당사자는 더 이상 공론화되지 않기를 원한다고 입장을 바꾸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단체에서도 입장을 바꾼 원인에 대해 깊이 있게 토의해봤었어요. S여고 공론화했던 측근과 연락해보니까, 언론을 피하는 이유를 물어보고 답한 내용이 있습니다. 언론이 완전히 왜곡된 내용이 많아, 언론을 못 믿고 차단할 한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언론을 피하는 이유가 완전한 왜곡은 아니지만, 못 믿어서 차단했다고 하고, 없는 사실도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인터뷰한 이를 색출하거나 스쿨미투 피해인 것 이외에 부풀려지거나 아닌 것이 적혀있어 원래 스쿨미투 한 사람이 더 곤란해지기도 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미투한 사람이 누구냐', '그 친구 때문에 학업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하는 등의 색출을 하게 돼요. 이걸 누가 그랬냐고. 학생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교사분들 사이에서도 학교 게시판에 사과글이 올라오면 이거 누가 했냐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건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걸로 의해서 다른 학생들의 미투를 두 배, 세 배 힘들게 몰아세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해 사실을 숨기게 되는 영향을 끼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뉴스나 언론마저도 여학생이라는 이름으로 대상화를 하는 영상 및 자료 화면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저도 언론이나 뉴스를 보면 자료화면이라고 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당했는지 보여주는데, 어둡잖아요. 전부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내는데, 남성의 성추행은 전체적으로 어두운 화면으로 편집해 범죄임을 드러내는 연출기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서 연출기법으로 재현하는 자료화면의 영상컷이 언론 신문에 자료용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성범죄 보도에서 피해자의 수동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되는데, 피해자를 수동적이지 성적 대상으로 재현한 지점에서 저는 솔직히 아쉬움이 크다고 생각해요. 또한 언론에서는 학교 문화를 더 성 평등하게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런 중요한 인터뷰가 안에 있긴 있는데 근데 스쿨 미투에 대한 충실한 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사용된 자료화면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생각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가 되도록 트위터나 각종 SNS, 대학생은 대나무숲이라고 하죠? '에타'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자기가 이런 피해를 받았다 연대를 한다, 이야기하는 게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렇게라도 언론 보도가 되어야 학교와 교육청이 움직이기 때문이라 생각해요. 저 같은 경우는 트위터로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이런 이야기를 썼는데 이런 이야기도 했더라. 애가 이렇게 잘못을 했다고 하면 제가 애들에게 가서 서로 연대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눈에 많아지는 것 같아서 이야기했고요. 교육청 민원을 넣거나 선생님한테 해결해달라고 이야기하면, 민원을 넣는 학생의 입만 다 물게 할 뿐이기 때문에 SNS를 통해서 피해사실을 알리고 가해 학생을 이렇게 처벌을 해달라 이야기하는 게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이제는 당사자의 입장으로, 보다 더 공정한 언론 보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언급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혜(사회) 학교라는 공간이 민주적이고, 어떤 배움이라는 곳이 잘 진행되어야 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라는 공간만큼 권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공간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식을 전수하는 자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엄청난 권력을 행사를 하게 되고 특히 남성이 지배적인 사회에서는 학교에서의 남성 선생의 권력이라는 것이 특히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요즘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폭력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

였지만, 예전의 <친구> 보시면 아시겠지만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하면서 막 때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무참히 짓밟히는. 그런데 그동안에는 그런 것이 선생님에 대한 권위로서 감히 반기와 도전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이 있어서 수용하는 측면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학생들이 인권에 대한 의식도 높고, 자기 의사 표현하는 능력도 많아졌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특히 이제 혼자만의 힘으로는 그것이 이제 대처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는데 아까 성현지님이 말씀하신 연대하는, 트위터를 통해 공유하고 연대하는 것이 어떤 힘 돋우기, 피해를 본 사람끼리의 힘 돋우기라고.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의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좋았구요.

두 번째로는 우리 부산 퀴어 문화 축제 홍보팀에 계신 지미님, 제3회 해운대 퀴어 문화 축제가 취소돼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있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 이외에 관련된 보도라던지 아니면 고민을 했던 부분들, 대표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미(부산퀴어문화축제 홍보팀) 안녕하세요, 부산 퀴어 문화축제 2018년부터 현재까지 홍보팀에서 언론사 인터뷰 및 SNS 홍보를 담당하고 있는 지미라고 합니다. 우선 퀴어 문화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기사를 해주신 기자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요, 일단은 부산 퀴어 문화 축제가 이번에 3회가 취소되면서 엄청난 관심을 받았어요. 부산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도권에 있는 신문사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올 정도로 인터뷰 요청 사례는 폭발적이었는데, 그 이후에 퀴어 총궐기를 진행했을 때에는 그 관심이 많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먼저 기획단에 인터뷰할 때 퀴어문화축제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기획단의 신변 보호가 힘든, 그러니까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던가, 기획단의 대표로, 인터뷰에 참여하는 분 혹은 기획단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많이 원하세요. 기자분들은. 그런데 선글라스를 쓴다던가, 마스크를 쓴다던가, 인터뷰를 진행할 때 얼굴이 나오지 않게 요청을 드리면 그것에 약간 의문을 가지시고, 얼굴이 드러나게 하면 안 되겠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희 기획단에도, 얼굴을 드러내고 지역 언론사 말고도 JTBC라던가, 얼굴을 드러내고 인터뷰에 참여하신 분이 계신 데, 그것이 직장에 알려져서 성 소수자임을 아웃팅 당하게 되고, 이후에 권고사직을 권하게 되는 사례가 있었구요. 이외에도 기획단에 인터뷰에 주로 참여하시는 사무국장이나 언론 홍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외부에서 알아본다거나, 아니면 이번에 경찰도 민간사찰의 경우도 있었고, 그런 식의 사례도 있었구요.

그리고 부산 퀴어 문화 축제를 가지고 부산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에서 퀴어문화축제를 다루는 타이틀이 매해 마다 논란, 충돌, 대립이라는 단어들만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로 읽힐 가능성이 높았구요. 참가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합니다. 성 소수자 인권 이슈보다 갈등 자체에 중점을 맞춰서 성 소수자가 갈등의 원인인 것처럼 그려지거나, 두 번째로 성 소수자 혐오 발언이 기사에 함께 담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중립적인 의견으로 다루는 것은 성 소수자의 문제를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다룸으로써, 대립할 수 있는 구도로 비춰지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성 소수자가 심리적, 물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은 매우 협소하고, 온라인 공간에선 차별적인 발언을 제재하기가 힘듭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가로막혀있는 시점에서 온라인에서 인신공격이나 정보가 퍼졌을 때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거의 미미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혐오 발언이 기사와 함께 올라왔을 때 혐오성 댓글이 도배됩니다. 긍정적인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한테요, 이에 저희도 기사를 공유할 때 혐오 발언이 많으

니까 댓글 창을 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던가, 우려의 말을 전할 때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KNN의 시사만사라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찬반의 갈등 대립으로 그려졌었는데요, 이후에 저희 부산 KBS에 시사반점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기획단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물론 거기에서도 반대 세력의 현장을 담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담는 장면이 있었지만, 기획단에 대해서 심층 인터뷰를 하고, 부산에서 성 소수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것이나, 생활, 일상의 영역이라던가 배경에 대해서 면밀하게 다루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지역 대학의 학보사, 부산대나 부경대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배경이라던가, 퀴어 총궐기를 진행했을 때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후에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거나 그리고 이번에 부산에 부대신문의 경우 굉장히 좋은 기획 기사를 써주셨는데 보통 퀴어 문화 축제가 개최되면 개최가 취소되거나 개최 당일에 현장 사진의 대립과 반대의 구도로만 거의 쓰고 생산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이번에 부산광역시의 제재라는 타이틀로 부산의 구의 인권, 조례에 관련한 현황과 현재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류를 해서 저희 부산 기획단의 인터뷰를 함께 실어서 앞으로의 부산에서의 성 소수자 운동에 대한 발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고 기사를 써주셨다.

그리고 부산의 경우는 아니지만, 전남의 경우에 전남 일보에서 인터뷰를 함께 실고 타이틀도 헤드라인을 무지개색으로 물들고, 퀴어 문화 축제 당일에도 그 앞에 무지개를 홍보하고, 많은 성 소수자들이 자긍심을 얻을 수 있도록, 중간에도 무지개색으로 밝혀줬었다. 그때 지역에서 특히 성 소수자를 긍정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배제에 머물러있는 일상의 영역에 성 소수자라는 타이틀이 없는 삶을 사는데 지역 언론사에서 제목에서 무지개를 쓰시고 거의 성 소수자에게 긍정적인, 서울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기획 보도가 될 때가 많은데 이와 다른 방향으로 지역에서 성 소수자에 대한 무지나, 혐오적인 지역의 분위기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혜(사회)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다름이 틀림은 아닌데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굉장히 집단주의적인 문화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런지 동질화된 것을 선호하고, 다른 것에 대한 호기심과 차별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사실 막상 성 소수자뿐만 아니라 이주민이라던가 다양한 다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의 인권, 인격을 함부로 훼손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성 소수자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이고, 미디어들도 쉽게 어떤 오류나 실수를 범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저희가 배워야 하는 것들이 많은 부분도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다 따지고 보면 다 조금씩의 낯다름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나의 낯다름이 나를 차별하는 요인이 된다면 굉장히 분개할 거 같은데 그런 다름에 대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화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도 그런 것 중의 하나같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꽤널로 나오신 분들이 방금 온 분도 계신데 여기서 논의가 된 것이 이제 어떻게 신문과 방송에서 이런 젠더 문제가 이슈화되고, 어떤 것들은 아예 이슈가 못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현업에 게시는 분들이 보도하는 것, 그런 게이트 키퍼링 과정 중에서 무엇을 기사화를 하고, 무엇을 기사화를 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나는 기사화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선에서는 기사가 되지 않는 그런 게이트 키퍼링의 여러 단계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 자기와 다른 태도를

가지는 리더 조직 내에서도 제도도 다르고 직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다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젠더 문제를 보도하거나 다루는 데 있어서 느꼈던 점이라든지 사례라던지, 조직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어떤 것들을 마련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그럼 윤과란 기자님부터 돌아갈까요?

윤과란(부산MBC 기자) 모니터 결과가 아마 이렇게 한 적이 로컬에서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고 뼈아픈 지적이 많아서 공감도 많이 하고 반성도 많이 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그렇다면 이렇게 다뤄지거나, 어떤 문제가 외부에서 지적을 받게 되는가를 잠시 고민을 해봤는데 한두 가지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는 성 이슈, 젠더 이슈의 특성 때문인데, 스쿨미투 성현지님도 말씀하셨는데 피해자 접근도 어렵고, 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접근하는 과정 자체도 약간의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사람의 의사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과정이 되게 골치 아프고,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회피하고 싶은 이슈라는 게 제 솔직한 심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복잡다단한 상황과 감정을 짧은 1분 30초의 짧은 방송 리포트에 대해서 답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기자들도 자기 성인지 감수성이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객관적 팩트가 충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걸 보도하기 굉장히 힘든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법원 판결, 경찰 수사, 교육청 감사라는 것이 물리지 않으면 다루기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떤 수사가 들어갔다, 법원에서 이런 판결이 들어갔다는 이런 깔끔하고 기자 입장에서는 전혀 손댈 것이 없는 팩트가 나와야 안심하고 보도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거 같고.

두 번째는 보도 제작 관행이 있는데 일단은 굉장히 출입처 시스템이 경찰서, 법원, 이런 기관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형사사건으로 접근하거나 이런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기자들의 특성이기도 하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오랜 관행이기 때문에 깨부수기 힘들고, 어린 연차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아오기 때문에, 젠더 이슈랄지 이렇게 굉장히 생소하고 우리 보도 관행에서 담기가 어렵다는 것이 한 가지 문제인 거 같아요. 그래서 또 대뜸 뭘 보고를 하면 데스크에서 그거 그럼 있어? 라는 게 사실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젠더 이슈든, 여러 가지 모든 사건 사고에서도 특히 어린 연차의 1년에서 7년 정도 되는 경찰 기자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은 그림이 없으면 기사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선배들의 오랜 제작 관행을 배우기 때문에 사실 성범죄나 이런 스쿨 미투 같은 경우라도 그림은 사실 생각도 하지도 않지만 만약에 자료화면을 쓴다고 해도 아까 부산 MBC가 받았던 것처럼 그런 실수가 나오기 굉장히 쉽다는 것. 또 한 가지 이유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편집할 때도 마지막까지 그림을 꼼꼼히 챙겨야 하기는 하지만 실수가 나가면은 사실은 좀 여러 가지로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기회가 있을 줄 모르겠어서 지금 다 끝낼게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더 잘 다뤄질 수 있는가 하는 해결방안은 사실은 되게 의식적으로 해야 하는 거 같아요. 되게 일상적인 보도에서 회피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하루가 편하게 지나가지만, 이걸 하는 건 의식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집단을 통해서 모니터링하고, 이런 것을 계속해와야 하는데 사실 그런 과정도 기회도 없었던 것이 사실인 거 같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돌아보면은 이런 계기가 좋은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여성 이슈를 여기자만 해야 하는가 이런 고민도 되게 많이 여러 번 했었던 거 같은데, 처

음에는 뭐 무슨 여학생들 그런 이야기가 있으면 되게 쉽게 여기자들 시키는 그런 관행이 많았는데 그제저는 처음에는 되게 불쾌하거나 조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는 최근에 생각이 조금 바뀐 게 여기자가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말자. 남기자가 안 하면 여기자가 하면 된다는 식으로 최근에는 바뀌었어요. 되게 적극적인 행위로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언론사와 기자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경직된 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씩 의식적으로 깨부수지 않으면 여기에서 분열 내기가 힘든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저 역시도 현장에서 고민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지금 취재 현장에서 잠시 떠나서 아까 지적했던 시사 포커스 연출을 맡고 있거든요, 한 지 두 달, 석 달 정도 되어있는데 전문가집단 패널을 섭외하기 굉장히 힘든데 거기서 여성을 찾기는 더 힘들어요. 저는 처음 왔을 때도, 저는 이 조사를 해주셔서 좋은 게 전문가로서 여성의 이미지는 전혀 없는 거죠. 시사포커스 시청자로서, 보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일부러 한 회당 여성 패널을 한 명 이상 섭외해야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첫 시작을 했는데 풀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서투른 사람이 나오면 방송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저도 이제 그런 도전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럼 이 풀이 또 자연히 줄어들게 되는 오랜 관행을 겪었던 거 같아요. 이것도 방송사나 언론사가 해야 하는 하나의 미션이기도 한 거 같아요. 그런 전문가 집단을 또 방송을 잘하고 익숙한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도 많은 현장에서 의존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혜(사회) KNN에 김상진 기자님

김상진(KNN 기자협회장) 예, 저는 KNN에서 부산 경찰청 출입을 맡고 있는 김상진 기자입니다. 우선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모니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셨는데 보니까 반성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시각으로 볼 수 있겠구나 하고 느낀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유진 사무차장님께서 오늘 자리가 부담스러웠을 거라고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정말로 많이 부담스러워서 좀 관심 있는 후배를 이 자리에 보내면 어떨까 이런 생각 했는데 제가 기자협회장을 맡고 있던 이유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부담스러웠던 이유 중 하나는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회사에 입장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회사에 규정된 준칙이라든지, 지침이라든지 이런 게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혹시 개인 입장이 우리 회사 전체를 대변하는 입장이 될까 봐 조심스러운 거 같아요. 그 말은 곧 우리 조직 내부에서 이런 내용은 크게 공론화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중론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도 편하고 자연스러운 텐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고민이 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젠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보도부 기자들도 세대에 따라서 사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젊은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젠더 문제에 대한 관심도 많고, 시대적인 하나의 변화라고 생각해서 발제하는 편인데 사실 어느 정도 데스크 급 이상에선 약간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발제를 했다가 축소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뉴스 매체 아까 윤 기자가 1분 30초의 뉴스라는 표현을 썼는데 1분 30초 뉴스는 짧다 보니까 심층적인 접근이 안 돼요. 1분 30초짜리 뉴스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게 한 두세 개 정도로 심층적인 뉴스로 가면 다양한 의견을 소개할 수 있는데 그 정도의 이슈로 키우기엔 부담스러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사프로그램, 시사만사라는 프로그램, 물론 아까 좀 지적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반면에 1분 30초 뉴스로서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안전한 쪽으로 보수화 된, 익히 알려진, 이런 쪽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젠더 부분과 비슷하게 느끼는 부분은 동물법 부분도 젊은 기자와 데스크 급 의견이 가치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그런 이슈인 거 같습니다.

조금은 변명이랄까요, 제 입장을 이야기하면 아무래도 조금 보수적인 기사를 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상과 뉴스 같은 경우에는 인권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재판과정을 통해서 유죄가 밝혀지기 전까지 누군가에 대해 단정 지어 표현한다는 자체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제한이 돼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그런 인권에 대한 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칭도 역시 많이 가이드로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밝혀지기 전까지 표현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기계적 중립성 부분도 갈수록 지상과 방송에 대해서는 가이드로 지침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물론 심증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그렇습니다. 심증적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맞다고 보면서도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양쪽의 의견을 균등하게 제시하라는 이런 지침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의 진일보된 입장을 표현하는 데 제약이 있는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도 사실 유튜브처럼 제약이 없어서 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여성 운동이 붓물처럼 터져 나왔던 시기가 있었고, 굉장히 많은 아픔도 겪고, 또 여성 운동가들이 차별과 사회적인 공격도 받으면서 여성 인권이 신장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가 붓물 터지듯 그 시대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기가 몇 년이 지나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훨씬 급 진일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새로운 이슈를 당장 꺼내 가지고 보도하기엔, 보도하는 입장에서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완전히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기존의 입장을,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반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 의견을 균등하게 맞추려고 하는데 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점점 잘 모르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슈가 전달되고 과급화되면 보다 소수자들과 여성들의 바뀌어진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알게 될 거 같고. 저희도 기계적인 표현보다는 시대적인 흐름이라는 걸 인식을 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바꾸는데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명혜(사회) 기계적인 중립성도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보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치적 올바름이 있어야, 새로운 것을 도전할 때는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깃발을 들고 나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다 편안하게 살고 싶어 하지 자기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화살을 맞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조금 더 미디어 쪽에서 그런 깃발을 들고 나가서 화살을 맞을 수 있는 용맹하게 전사할 수 있는 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해봅니다. 물론 생활인이고 직업인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정치적 올바름으로 무장하는 미디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상진(KNN 기자협회장)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아무래도 기존 지상과 뉴스 같은 경우는 주 시청자가 30대 이상인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그분들은 적극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우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항의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뉴스를 바꾸는 거는 유튜브도 좋지만, 지

금의 지상과 뉴스도 많이 봐주시고 모니터를 해서 항의 전화를 많이 해주시면 크게 바뀔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김명혜(사회)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숨은 조금 돌리셨나요, 조봉권님? 네 국제신문에 조봉권 국장님 모시고 지금 저희가 하는 이야기와 관련해서 국제신문은 어떤 기사를 쓰고 있는지, 어떤 젠더 기사를 쓰고 있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조봉권(국제신문 편집부국장) 국제신문의 조봉권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어렵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풀어나가면 제가 입사를 했을 때 대체로 신문사 안에 분위기는 일반 다른 직장에 비해서는 정서적인 남녀차별 이런 것보다 서로 인정하고 평등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노조원이 되고, 항상 비판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남성이라고 해서 대놓고 이렇진 않고, 서로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남성 기자들의 전유물이었던 시경캡이나 사회부장, 문화부장 다 여성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왔던 것 같다. 그래서 기자들 간의 어떤 개인 인식 수준이 매우 낮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말씀을 들어보면 편집부 안에 사람과 그 사람들 간의 권력 관계나 정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면 남성 중심인 것은 확실히 한 것 같습니다. 남성 중심의 구조가 여전히 밑바닥에 이렇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점은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야기들이 더 진지하고 민감하게 제기되고 이루어지면서 이런 편집을 다루어야 할 때도 더 많아졌는데, 저 같은 경우는 사회부 생활 경험이 적고 다른 쪽 경험이 많은 관계로 그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민감한 주제가 많이 들어갔을 때 회피를 많이 합니다. 쿼어 축제같은거 보면, 이걸 정면으로 부딪치기에는 취재 기자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대한 종교계가 똬든 어디가 똬든 반대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살짝 긴장도 되고. 이걸 정확하게 부딪히기보다는 약간 회피? 또는 그렇게 어느 정도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일간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워낙 다종다양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므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에서 기사를 써야 하는가 고민이 형성되는 것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현재 국제신문 독자권익위원회를 하는 대학생분이 칼럼을 주셨는데 오히려 저는 그 칼럼이 굉장히 유익했고,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왜 기사를 쪽 스크린을 해보니, 여학생, 여대생 이런 표현을 왜 쓰냐? 남학생 남대생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자주 이야기되어온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방금 봤더니, 기획 기사에서는 젠더 문제 기사가 선진적으로 나가는데 일반에서 쓸 때는 의식적이고 남녀차별이 전제되어있는 걸 그대로 써버리는. 이게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신문이나 언론매체가 일반지가 못했던, 굉장히 부끄러운 것인데, 그게 일상생활에서도 어느 정도는 이런 거에서 민감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남성 기자, 여성 기자라고 하더라도 이게 일상적으로 써버리는 거죠. 그 안에, 그 밑에 숨어있는 진짜 큰 문제를 잘 못 보거나 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예술계 미투가 터졌을 때 사실은 담당 기자가 문화부에 있었는데 담당 기자도 여성 기자였고, 굉장히,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신랄하게 기사를 썼어요. 사회에서는 다 이루어져 있고, 칼럼이 펑펑펑펑 터져 나오니까. 저희는 그런 거 인권을 지지하면서 마치 좀 그거를 보도하는 사람을 저희가 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진화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명백한 사건이 있을 때는 기사를 써요, 명백한 사건이 있을 때는. 이런 일들이 대체로 민감한 것도 많고 양측 입장을 진지하게 듣다 보니까 기사를 못 쓰게

되긴 한데.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술계 미투가 아니라 지역 문화계에서 비슷한 문제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문화계 문제가 제기 되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은 힘이 들었어요. 이거를 제기된 문제를 젠더 문제 또는 남녀평등 문제를 명백하게 어긴 문제라고 봐야 하는가? 그렇게 안 볼 수 있지도 않나? 그래서 이거를 보도하는 순간, 해당 가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명백하지 않을 수도 있는 딱지가 붙는 것도 생각해야 했었고, 우리가 더 잘 안다고 하는 지역사회이다 보니 그 배경에는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있어, 그거는 뭔가 있어, 다른 꿩꿩이가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들면,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문화계가 됐든 사회계가 됐든 성적 차별, 젠더 문제가 민감하게 들어오면 대체로 남성 기자들은, 기자들은 대체로 관대한 척합니다. 어? 그 정도면 나도 ... 그렇지만 좀 더 들어오면 에이 그건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건 남녀평등의 문제가 엄연하게 있는데 남자도 뭐가 있지 않나 하는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기존 질서나 관점을 바꾸지 않겠다는 태도가 느껴질 때도 있는데, 교통 관련 법 택시를 타서 택시기사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십니다. 교통 관련 법규가 너무 엄격해서 우리가 윈스트라이크, 투스트라이크가 되면 우리 면허가 박탈돼버린다. 너무 엄한 거 아니냐고 말씀을 하시면, 맞장구를 치다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교통이라는 게 너무나 범위가 넓고 크고 중요하다 보니 여기서 예외라고 하나를 인정해줘서 여기서 후퇴를 하면 사회 혼란에 빠지거나 사회 발전을 못 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기되어왔던 사회 논란이 됐던 해화동 집회부터 해서 그런 한쪽에서 굉장히 불편해하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강한 문제를 제기했던 이 문제는 좀 더 강하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한 발자국 더 진전하는 일이겠다, 라는 말을 반성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김명혜(사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일보의 윤여진 기자님.

윤여진(부산일보 여기자회장) 반갑습니다. 부산일보의 윤여진입니다. 조금 늦게 와서 정말 죄송하고요, 일정이 있어서 미리 자료를 받았는데, 받고 나서 괜히 이 자리를 수락했다는 생각이. 가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까 하고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이런 시리즈를 썼던, 담담이 있었던 분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고, 제가 겪었던 것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적절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2003년도에 부산일보에 입사했는데요, 2003년도 저희가 입사했을 때 저희가 5명이 입사했는데, 처음으로 여성 기자가 3분이 있었어요. 그전에는 한 ... 한 명, 아니면 없거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직이 특정 젠더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2003년도에 입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뭔가 의제 결정 구조에 사실상 여성이 들어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만약에 제가 올라간다면 저희 기수부터 올라간다면 충분히 갈 수 있겠지만, 출발부터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안에서도 끊임없이 자정 노력을 하긴 하는데, 결정적으로 숫자가 너무 작습니다. 여성 기자 숫자가 기본적으로 적기 때문에, 아직도 20%도 안 되고 십몇 퍼센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목소리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앞에 많은 여성 선배들이 목소리를 내며 싸워왔기 때문에 저희 여성 기자들이 더 많이 뽑힐 수 있었고 앞으로 더 많은 길이 열리지 않나 싶습니다. 앞에 조봉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기 때문에 아마 방송사도 마찬가지로 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아직까진 여성이 메인 스트림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어떤 아젠다가 설정이 될 때도 그런 것들이 많이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

데 앞으로는 바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솔직히 기자 개인의 관심이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합니다. 예컨대,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여성 동료 기자들과 일·가정 양립 관련(‘맞벌이 시대’ 부산을 가족친화 도시로) 시리즈도 썼고, 해시태그 운동이라던가 문화 예술계의 미투 운동이 있었을 때 제가 문화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보도하고 부산에 부산 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가 결성되고 했는데, 그 첫 집담회부터 보도했고, 그리고 그게 사실상 기자 개인의 관심도 좌우를 합니다. 제가 만약 사회부에 있었으면 조금 그런 부분에서 주춧목을 텐데 오히려 문화부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부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를 전할 수 있었고, 운 좋게도 저희 데스크도 거기에 대해서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큰 설득작업 없이 계속 보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신 그런 건 있었습시다. 문화부에 있을 때 책 소개로 문학 담담을 오래 하면서, 주로 젠더 위주의 책을 소개할 때마다 다른 책 소개를 할 때는 댓글이나 회사에 전화가 안 옵니다. 그런데 젠더 차별과 관련해서 책 소개를 하면, 연세 많으신 분만 전화 오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젊은 남성분들도 굉장히 전화 많이 오거든요. 육두문자를 쓸 때도 있고 특히 전화가 회사로 오지 않으면 제 이메일 주소로 와서 너무 편파적이다, 어떻게 이런 책을 소개할 수 있느냐, 문화 담담이 맞냐. 아 그래서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이 많구나 했고, 그만큼 젠더만큼 뭔가 들어가면 어떻게든 시선을 집중하는 효과가 있으나, 사실 파급되는 것까지는 굉장히 지난한 역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었고, 이걸 제 개인적인, 어쨌든 그런 식의 반응이었고 어쨌든 이런 기사를 읽기는 읽는다는 데에서 저는 많은 독려가 됐었고, 아예 무관심이 더 무섭지 않습니까? 기자의 입장에서. 댓글 하나도 없고 아무 전화도 없으면 더 불안합니다. 뭐지? 내 기사가 틀렸나?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그래서 아까 김상진 기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문제가 있으면 바로 전화를 주거나 메일이라도 써주십시오. 그러면 아, 내 기사 누가 보고 있으니까 열심히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영역이고,

세 번째로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공정 보도위원회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공정 보도위원회 중심으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게 당장은 외부에서 보시기에는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으나 계속 지켜봐 주시고 계속 제안해주시고 계속 비판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자회,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기자협회도 있고 여기자회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자회 회장을 맡아 동료들과 한 세미나 ‘젠더이슈보도와 성평등을 위한 언론보도방향’은 오정진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권명아 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님을 모셔가지고 우리 나름의 보도를 가지고 사토론을 두 차례 마련했었습니다. 그때 남자 기자들이 과연 관심을 가져줄까? 하고 굉장히 그랬는데 기자협회 협조를 얻어서 오히려 남성 기자분들도 더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모르니까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단어를 조금이라도 어? 여대생 쓰면 안 되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또 신문기자이다 보니까 나이나 여를 썼거든요. 여를 다 뺐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어떻게 보면 진짜 미흡한 발자국이긴 하지만 저희 안에서는 고무적이라는. 내부적으로. 그래도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 쓸 때 조금이라도 생각을 한다는 게, 저희도 마찬가지로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자각을 못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럴 때 아차, 하고 놀라기도 하고. 사실은 저희끼리 말을 할 때 나중에 이걸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흥등이 미화하는 표현인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내부에서는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주신 걸 정말 감사히 여기고, 혹시 이 자료를 저희 내부적으로도 공유를 할

수 있으면 여기자회 차원에서 기억하고 공부를 해서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를 하고, 얼마든지 비판이 있으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치고 질문 있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 양해해주시고, 제가 답변해드릴 수 있는 선에선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이슬(KBS부산 기자) 안녕하세요, KBS 이이슬입니다. 저는 짧게 할게요, 앞에 벌써 네 분의 기자들이 이야기하셔서 너무 제가 생각했던 걸 비슷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는 일단 뛰어넘을게요. 저는 오기 전에 모니터를 먼저, 궁금해서, 혹시 얼마나 지적을 받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에 봤는데 너무나 놀랐습니다. 이게 웬만한 대학교 소논문을 뛰어넘는 정도의 질로 이렇게 꼼꼼하게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부끄러워지는 것들이 정말 많구나. 예를 들어 윤 선배가 여성인데도 자각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48페이지에 KBS 센텀2지구는 누구를 위한 개발인가에서 스튜디오에 나온 여성 기자가 저였습니다. ‘이름이 이슬기자라하고 자막은 군만두를 부르는 상큼함이라고 하는 자막을 보여준다.’ 이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굉장히 젠더 감수성이 예민하다고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만들어진 것을 보고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게, 오히려 내가 비판을 해야 했던 게 아닌가. 편집본을 제가 받았을 때 이번에 자막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반문을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부끄러워할 정도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던 여기자, 여성, 여자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는 건 급속하게 언론사에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사건 기사 같은 경우의 방송도 27살 여성, 30대 여성이 붙잡혔습니다.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저희는 쓰지 말자고 강하게 나가고 있고, A 씨, B 씨라고 하거나 남성도 쓰지 말자 필요 없는 경우는 남자, 여자를 쓰지 말자고 할 정도로 많이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 제가 이거를 올 때 김유진 사무 차장님한테 처음 패널로 제 일을 받았을 때 다른 누가 오시냐, 여자 기자분들만 오시는 거면 절대 안 되겠다. 어떡하나 했는데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지금 여섯 분 중에 무려 50% 남자분이라는 거에 대해 너무 놀랐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 저희 회사 안에 이런 게 있다니까, 여자 후배들이야 오 이런 것들도 하네요? 하지만, 아니다. 남자 후배들이 와야 한다. 선배들은 너무 오기 힘들니까 남자 후배들한테 콜을 했죠. 결과적으로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왔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관심을 집중시키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딱 제의를 받고, 여성 후배 기자들을 일부 불렀죠. 젠더 감수성이 높다고 추정이 되는 여성 후배들에게 자. 뭐가 문제인지 말해보거라, 라고 했더니 너무 많은데 그걸 다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결론은 그랬어요. 일단은 젠더가 출입처의 개념으로 아직 형성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회부, 문화부라고 말씀하셨지만 겨우 지금 넣을 수 있는 분야가 인권 분야로 해서 적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서야 노동이나 인권 같은 걸 우리가 챙기자는 말이 나오지, 여전히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같은 급으로 형성이 돼 있지 않다는 점이 크고, 그것 또한 지금 바뀌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가자. 저희 KBS는 이번에 이사하면서 사회부 안에서는 이슈 중심으로 가자. 젠더 이슈가 터지면 그것으로 불고, 인권 이슈가 터지면 그쪽으로 불자. 라고 해서 변해가고 있는 점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상진 기자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1분 30초 안에 다 하고자 하는 것을 다 말하기가 어렵다. 뉴스 제작의 현실적 제약, 관행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저희 방송 기자들은 너무나 손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또한 사실은 변명이기도 하

고, 저희가 내세울 수 있는 명분인 것은 맞아요. 교수님이 바로 그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불편함에 직면해달라, 라는 요청을 하셨는데 저희 기자들이 그래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후배 기자들과 이야기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젠더 문제를 여성 기자만 주로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제가 계속 집중적으로 할 때가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문화 담당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 문화 담당이어서 문화 쪽에서 터질 때, 반 성폭력 연대가 막 활동할 때, 저도 했었는데. 그래서 후배 기자들은 이런 이야기들도 하더라구요. 똑같은 젠더 문제를 예를 들면 미투 보도를 여성 기자가 하면 피의자로 추정되는 남자에게 충분히 들었어? 팩트야? 라는 걸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런데 그 보도를 어찌다 한 번 남자 기자가 하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같은 인상도 담는다는 이야기도 할 정도로 여전히 보도국 안에 데스크들의 끊임없는 의심, 그들의 불편함, 그들의 무력과 싸워야 하는 것이기도 하고. 윤과란 기자님한테서 제가 배운 건 그래서 이 남자 기자들을 어떻게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냐는 이야기를 회사 안에서 했었는데, 윤 기자는 그냥 여성 기자가 여성의 이야기를 하는 걸로 가는 것이 괜찮겠다 하고 최근에 느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얘기 들으면서 그게 나쁘지 않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당연한데.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하였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책, 힘을 실을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은 이런 겁니다. 지금 행사 같은 이런 외부에서의 모니터 활동을 좀 더 강하게 해주시고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뿌리시고, 공문도 보내시고, 모니터 발표도 하시고, 기자회견도 하시면서 시민단체의 힘을 키워가면 언론도 힘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요즘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시대로 바뀌었으니까. 저희가 함께 더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바뀌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명혜(사회) 여러분들 다 말씀하시느라고 제일 오래 기다리신 KBS 부산의 엄정민 PD분이 계십니다.

엄정민(KBS부산 PD)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시사반점 연출하고 있는 엄정민 PD이고요. 사실 편성 제작부에서 제가 막내 PD인데, 퀴어문화축제 편을 제가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저희 회사나 부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느낀 것, 제 생각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기계적 균형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기계적 균형에 대한 개념은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기계적 균형의 의미가 단순히 양적 균형이 아니라 소수자, 약자한테는 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균형이다, 이런 의미로 공정성 균형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 가고 있다는 추세로 저는 알고 있었고. 그런 면에서 균형을 신경 쓰지만 이제 프로그램을 연출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한 쪽에 마음이 가길 마련이거든요. 그 의도가 조금이라도. 그래서 퀴어문화축제를 제작했을 때에도 VCR 영상 제작 의도를 세 쪽지를 보여준다고 하면, 그중에 두 쪽지는 문화축제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으로 할애를 하고 나머지 한 쪽지를 기독교 쪽, 반대 쪽 입장하고 이런 식인데, 사실 그런 방식이 저희 쪽에서는 최소한의 균형을 위한 노력인데도 소수자분들 입장에서는 성에 안 차실 수 있다는 것도 느꼈고.

지역국의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자체 제작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개 안 되거든요 인력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 의도부터 젠더 감수성을 담을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몇 개 안 되는 프로그램 중에 한 프로그램부터 젠더 감수성을 할애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시사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주제로 선정하는 정도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노력인 것 같은데.

아까 무관심이 반대보다 무섭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게, 이 소수자 관련 주제들, 젠더 관련 주제들을 선정하면 당장 시청률이 반 토막이 나요. 실제로. 외면하시는 거죠. 기성 시청자분들은.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한 번 한 번의 주제에 대한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는 면들이 있는 것 같고, 시청자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피드백을 주신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더욱 동기부여가 되는데, 실제로 제작했을 때 무관심에 가까운 반응들이 돌아오다 보니까 취재하고 제작하기엔 어려운 데에도 불구하고 제작진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유를 잘 느끼지 못하는? 저희는 이제 보도 쪽이랑은 다르게 시청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피드백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올바른 말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환경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반성도 좀 했던 게 성 소수자 분들 심층 인터뷰라고 좋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나름 생활에서 느껴지는 부분들을 담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인터뷰도 실제로 한 두 시간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저희 제작 여건상 인터뷰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그런데도 그렇게 그나마 이해를 해줬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점부터가 취재 단계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못한다는 걸 드러내는 단면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조금 희망적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PD 직종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희망이라고 말하면 조금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여성의 숫자가 올라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적어도 남성 위주로 돌아가는 분위기 자체는 많이 개선된다는 걸 저는 피부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저랑 입사한 PD 동기들 11명이 있는데 그중에 저 빼고 10명이 다 여자예요. 그런 수준으로 인력 구조 자체가 여성 중심으로 바뀌어 간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실제 내부에서 아이템 회의 같은 걸 할 때도 여성을 억압하는 쪽이라던가, 남성 중심적인 이런 아이템들은 저희 내부에서 킬을 당하고 있어요. 오히려 여성분들의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TV를 제작하는 편성 제작부 안에서는 정치적 올바름이 무뎠던다고보다는 실질적인,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 있어 동기부여가 잘 안 된다는 쪽에서 걸림돌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젊은 또는 소수자분들에 이입할 수 있는 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주시고 피드백도 주시고 하면, 저희 제작 여건에서는 동기부여도 되고 유의미한 아이템들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김명혜(사회) KBS 쪽에서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 같네요. 아직 시간이 남고 그래서 묻고 싶은 분께 미디어 중심의 어떤 젠더 비중이랄까.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조직에서 소수자가 목소리를 내려면 적어도 30%라는 인계점을 넘어야, 소수자가 자기의 목소리를 솔직하게 낼 수 있는데, 여기자만 16%라고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미디어 관련 조직들의 통계를 보면, 대부분 80대 20? 거기서 이제 70대 30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비중이라는 게 숫자적으로는 많이 넘어오고 있긴 한데, 우리가 수직적인 문화를 봐야 하잖아요. 의사결정 할 수 있는 꼭대기에 누가 있느냐, 여성이 거의 있지 못하다는 의미죠. 아무리 여성들이 의제를 발굴하고 이런저런 방법들을 하자고 제안을 해도 위에서 공감이 안 가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부산일보는 여기자 비율이 16%? 그럼 KBS는 ...

이이슬(KBS부산 기자) KBS는 방송 3사 중에는 월등히 많고요. PD는 거의 여성 위주로 ...

김명혜(사회) 아까 열 한 분의 기자분들이 ...

이이슬(KBS부산 기자) 기자 보도국. 저희도 얼마 전에 놀랐던 게 저희는 뉴스 부산에서 4개 정도를 하루에 만드는데 4개가 다 여성 기자가 나가는 경우가 요즘 꽤 있을 정도로. 반 반도 거의 넘어서는, 그러니까 취재 기자만 보면 그래요.

김명혜(사회) 예전에 확실히 뉴스 보도국은 요새 여성 기자들이 굉장히 많이, 전형적인 어떤 남성 영역의 취재도 굉장히 많이 가고 그런 모습이 보기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분들, 신문사는 어떻습니까? 신문사는 남녀의 성비가 어떻게 되어있고, 여성의 직급 중에서 제일 높은 직급이 어디까지 올라가 있습니까?

조봉권(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여성 기자들이 되게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걸 일상이라 세어보질 않아서. 아마 한 3-4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윤여진(부산일보 여기자회장) 아직 데스크에서 직접 칼럼을 쓰시는데, 보통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자들이 많아 보여서 그런 것 같은데, 아마 저도 정확하게 계산은 안 해봤는데 한 20% 안 될 것 같아요.

조봉권(국제신문 편집부국장) 저는 이제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오전에 열리는 제작회의가 의사를 결정하고 오늘 뭘 메인으로 갈래, 뭘 쓸래 말래. 어떻게 보면 거기가 권력이 모이는 곳인데 꼽아보니까 지금 국제신문은 시청 출입 기자도 여성이고, 여성들이 되게 주요한 자리에 많이 가 있고 그렇지만 사회부장, 문화부장만 여자예요. 나머지는 국장, 부국장, 정치부장, 경제부장 다 남성인 거예요. 그런 구조 안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보니 제 기억에는 국제신문은 편집 국장과 편집 부국장 자리에 여성이 계신 적이 별로 거의 없었네요.

김명혜(사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리에는 대부분 남성이 있기 때문에 여성들의 의견 반영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KNN과 MBC는 어떻습니까?

김상진(KNN 기자협회장) 저희 위에 선배 기수 중에는 정말 몇 명 없었는데, 밑에 후배 4개 기수를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 기자가 여섯, 여성 기자가 셋이었고, 두 기수만 보니까 남자 셋 여자 둘. 그래도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사회) MBC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윤파란(부산MBC 기자) 저희는 제일 적은 것 같아요, 방송 3사 중에. 지금 보도 국장으로 일하는 동기인 여자 선배가 제일 먼저 들어온 선배데, 그분. 보도 국장은 아직 한 명..., 여성 보도 국장은 한 명입니다.

김명혜(사회)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도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기계적으로 맞추는 건 아니지만 50대 50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읽은 자료에 의하면 핀란드나 북유럽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양성평등 이런 쪽으로, 젠더나 차별이 없는 선진국들이라고 하는데, 핀란드의 경우

는 거의 50대 50으로 남성과 여성의 비중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오히려 젠더가 이슈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보편적인 인권이라서 소수자에 대한 인권을 이야기하지, 여성 인권, 남성 인권 이런 게 아니라서 저에게는 굉장히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그게 이제 보편적인 것들이 되니까 거기선 이제 이야기할 거리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빨리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직 시간이 좀 걸려야 하는 일이기도 하고, 저희가 마지막으로 패널에 계신 분들에게 여쭙고 싶은 것은 젠더 관련해 어떤 보도 가이드라인이나 뉴스를 만들 때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는지, 혹은 또 사내교육이 있는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라든지 젠더 교육과 관련된 사내 교육 제도가 있습니까? 자유롭게 말씀해주세요.

윤파란(부산MBC 기자) 부산 MBC 없습니다.

김상진(KNN 기자협회장) 저희는 회사 차원에서 하는 보도와 관련한 것은 없고, 가이드 이야기하셨는데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없습니다.

김명혜(사회) 그러면 2014년인가 여성가족부에서 그런 성폭력 보도 관련한 이런 거는 다 지키고 계신... 그런 거를 내보낸 거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부하고 ...

이이슬(KBS부산 기자) 그런 자료를 본사에서부터 계속 참고해라, 이런 일이 있으니까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간단히 요약하거나 해서 다시 내려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김명혜(사회) 그걸 개인이 참고 하는 거죠?

이이슬(KBS부산 기자) 네 본사는, 서울은 조금 나은 것 같고 지역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명혜(사회) 그래서 젠더 이슈를 기사화할 때 그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뉴스를 만드시는지?

윤파란(부산MBC 기자) 사실 윤 선배(부산일보 윤여진 기자)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기사 개인의 관심사나 전문성에 기대서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아직 출고 안된 기산데 이렇게 딱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표현이 잘못된 표현을 썼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가서 “야, 무슨 뜻인지 알고 썼냐?” 이런 식으로 지적을 한다든가 하면 깜짝 놀라서 그 다음번에는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저희 회사는 아직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김명혜(사회) 저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방송사나 신문사에 계신 분들과도 이야기하고, 스쿨 페미니즘, 그리고 퀴어문화축제 준비하신 분도 계시는데, 플로어에서 나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다, 아니면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누구라도 좋으니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플로어 1 안녕하세요. 저는 제 경험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 제가 경남에 있었는데 경남이라고 하면 미투에서 가장 큰 회오리를 맞았는데 그 당시에서 저는 미투의 당사자였습니다. 정

확하게 당사자라 하기보다는, 여성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에 관해 전국 최초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의 피해자 두 명을 대리해서 대리 미투 보도를 언론에 했었던 케이스인데요. 굉장히 언론 보도에 사실 대응하는 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보도 자료가 한 5번 나왔는데 5번 나왔던 내내 그 날과 그 다음 날은 거의 기자들에게 시달리는 날인데, 시달린건 둘째치고 거의 하나같이 이런 것들, 물론 아닌 기자님들도 있었지만. 일부 기자님들은 이제 피해자가 두 사람이 있으니까 피해자들을 좀 더 보호하기 위해서, A씨 B씨를 섞어서 내고 그랬는데, 이걸 추정해서 들어오는 기자님이 많았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특히 제가 이 분들을 대리하기 직전에 JTBC에서 피해자 두 명 중 한 명을 실명 공개하고, 대놓고 구분했거든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기자들이 더 집요하게 이 사람이나 다른 사람이나, 그 부분에만 굉장히 열을 올리신 분이 있었고, 모 방송사 여자 기자님께서 피해자 당사자와 연결해달라, 연결하지 않으면 취재 안 하겠다. 제가 먼저 취재 해달라는 부탁을 드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나오셨고. 데스크에서 그 날 저녁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음날엔 저보고 나와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랬었던 적도 있었고. 물론 저는 부산 기자님들, 물론 지역마다 언론 환경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의 기자님들은 상대적으로 낫다고 생각을 해왔는데 어쨌든 대리 미투를 하면서 겪었던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쉬웠다는 점이 있었어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좀 생각을 했던 게, 11쪽, 12쪽을 보시면 낙태 관련 보도라고 하지만 사실상 자극적인 보도라 볼 수 있는 건 다 연예 기사거든요. 그 다음에 18쪽에 보시면 <표9>의 문제가 될 만한 기사들도 다 연예기사입니다. 뒤에도 마찬가지로. 사실 뭐 부산일보가 해당되는 사안인데 이렇게 연예, 온라인 기사인 연예기사에 집착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부산일보를 굉장히 사랑하는 독자로서, 사실 연예매체는 인터넷 여러 매체들이 다 하고 있는데 부산일보도 해야 할까. 그 문제만 해결되어도 여기 나오는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고, 그래도 좀 좋았던 건 완월동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조레나 이런 제도적인 문제로 취재하면서 기자님과 통화를 했었는데, 기사에 나간 조레 현황이 잘못되었다, 제도에 대해선 이런 부분들도 있다, 기사에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좀 아쉽다, 하는 이야기도 했었거든요. 어쨌든 이번 분석이나 발표가 참 좋았고 기대 이상으로 와닿았는데, 여러 언론사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안들이 있겠지만 많이 나아지는 것 같고, 작년과 올해를 비교해봤을 때 또 다른 거 같고, 올해랑 내년을 비교했을 때 또 내년이 더 나아져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명혜(사회) 또 다른 분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 하실 분 계신가요?

플로어 2 말을 안 할까도 했는데, 아까 기자분들이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고요. 저는 부경대 신문방송학과의 이 상기라고 합니다. 저도 딸을 낳았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아이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헤쳐나갈지에 대한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우리 딸이 대학을 가면서 여성 운동을 하고 있어서 딸하고 술 마시는데, “아빠는 50대 남자 교수잖아” 그 한 마디로 저를 공격했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절망스러웠던 게 부산이 참 보수적이고 답답하던 생각은 다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까 대부분의 대답이 다 ‘타협’이었어요. 타협하고, 독자들이 항의하니까. 그리고 아까 정치적 올바름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다”. 근데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하셨으면 ‘제 3자 효과’가 있다는 걸 아실 텐데. 지금 기자가 생각하는 시청자가 누구인지, 독자가 누구인지를. 실제

시청자, 실제 독자가 아닌 기자들의 환상 속에 있는 독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부산이 또 뭔가 발전적으로 나아지려고 하면 기자들이 권력을 비판하듯이 문화에 대해서 비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보수적인 문화에 대해서, 심지어 외국에서는 어떤 그 사회의 개방성을 측정하는 데에 있어서 게이 지수까지 측정하는데 부산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이 개방적이지 않으면 부산에 미래가 없지 않으나. 그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눈치 보며 있다 보면, 결국 부산은 보수적으로 될 거고, 어떤 젊은이들이 부산에 살고 싶어 할 것이며, 다 부산에서 청년들이 떠난다고 하는데, 그 떠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부산이 상당히 보수적이고 폐쇄적이고 그런 것들 때문인 것 같은데. 언론이 뭔가 앞장서서 부산의 개방성, 열린, 어떤 사람들일지라도 받아들이고 그런 게 없다면...

저는 오늘 솔직히 좀 암담하다. 기자들이 타협을 하는데, 누가 부산에 대한 문제를 바꿀 수 있는가, 바꿀 수가 없겠구나. 어떤 정치적 올바름을 떠나서 미래를 생각하는, 젊은 독자들 그리고 시청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젊은 시청자, 젊은 독자를 위해서 만드는 게 뭔지. 이때까지 만들면서 비판하는 나이 드신 분들, 물론 아닌 분들도 있다고 그랬지만 그런 보수적인 입장이 비판하는 부분은 걱정하고 우려하면서. 젊은이들은 뭐 의견이 없어서 그러나? 거기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조금 더 젊은 관점의, 개방적인 관점의, 발전적인 관점의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기사를 만들어주셔야 부산이 앞으로 숨통이 트이고 뭔가 한국에서 제2의 도시라고 하는데, 왜 제2의 도시여야 하는지. 한국에서 최고 앞서나가는 도시가 될 수 있는데 타협하는 분위기 속에서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어 3 신문방송학과 박사과정 2차 박은지라고 합니다, 저는 학부가 동아대 조소과였고 3년 전에 교수 임용 과정 중에 젠더 이슈가 기사화, 도구화된 과정을 지켜봤고 학교를 같이 다니는 친구였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부경대학교에서 연구비를 준다고 해서 논문 공부를 하는데, 서울에 성소수자 인권단체의 10년간 선언문을 분석, 울며 겨자 먹기로 논문을 쓰고 있기도 하고. 그 논문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제가 서울에서 석사 과정을 다닐 때 행정집행 위원장과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분의 삶을 많이 지켜보진 않았지만 지켜보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축제가 공론화되고 밖으로 나와야 한다는 이유가 생존과 관계가 되어있다고 하거든요, 그들은. 그분이 본인이 게이인 것을 표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 가는 과정 중 하나가 석사 과정을 밟는 것이었고, 비평 활동을 하는 것이었고 지금은 이제 언론에 공개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당연히 직장이나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생계와 결부되어 있는 활동이긴 하지만, 정말로 성 소수자들이 근대적인 구조 속에서 이주민 여성이라고 하던지 가장 소수로서 위치되어 있는 게 성 소수자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영원히 소수자로 머물 수 있는 밖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인정이라는 게 권력이랑 결부되어있기 때문에 그들이 공론장에 나오고 주제를 만들어나가고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는 모든 것들이, 기사화되고 영상 안에서 정말 소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기 위한 방법. 삶의 마지막 선에 있는 그 직전에서 살아가기 위한 방법,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해서, 어떤 다른 기사보다는 조금 더 마음을 울리는 것들로 다가가야 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탁을 드린다는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플로어 4 부경대에서 공부하고 있는 김영빈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신방과에서 공부하고 있지만, 기사를 생성한다는 것이 얼마나 피를 말리는가. 매일 마감이 있고 마감을 지켜나가면서 사회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고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 공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비판을 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언론)공부한다고 하는 것은 (언론)업계와 악어와 악어새 같은 느낌인데.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젠더 이슈에 대해 논의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 중 하나는 젠더 이슈가 좀 더 여러 가지 소수자 문제와 복합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 같아요. 사실 여성문제와 LGBT 같은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루트가 다를 수 있는 문제거든요. 사실은 성 소수자 문제는 정말로 우리 사회에 소수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정체성이 그렇게 부여가 되어있는 그러한 벽의 문제라면, 여성 문제는 오히려 남성과의 갈등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이게 더 이슈가 되는 문제인 거죠. 근데 남성과 여성의 갈등 상황에 집중할 때, 현재 언론의 관행은 어떻게 비추고 있는가? 주로 가정, 가사, 육아, 아이 문제. 이런 루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간간히 가문에 콩 나듯이 기업 임원진 중에 여성 비율이 얼마냐, 국회의원에 여성 비율이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이 하나의 세계에 다양한 전문 분야들이 있고, 거기서 함께 나가서 결과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성원들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사회가 여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시각 그 자체는 여전히 가정 중심으로 하는 그런 과정의 재생산과 그런 문제를 집중시키면서 그걸 너무 갈등이 첨예한 것처럼 보도하는. 그러한게 현재 우리 뉴스가 만들고 있는 관행의 문제고, 그러니까 시청자들이나 독자들도 젠더 이슈가 나올 때마다 뉴스를 읽기 전부터 이미 피로감이 있는 거죠. 아 또 뭔가 갈등 이야기다. 다시 나올 때도. 이 갈등 이야기가 결국 답도 제시하지 않을, 말 그대로 갈등 이야기만 전하는 뉴스가 되겠구나. 이런 피로감이 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젠더 공부를 하고 젠더 이슈를 바라보는 이런 기준을 좀 언론사에서 조금 바꿔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명혜(사회) 요즘엔 혐오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사회가 혐오 사회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젠더 이슈에 혐오라는, 여혐, 남혐 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언설들을 자꾸 증폭하면서 더 문제가 악화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용어를 바꾸는 것도 좀 필요한 거 같고, 물론 또 사실은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던 게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저는 이제 여성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인간 같이 만들고자 하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나면, 여성들이 남성을 짓밟고 올라서기 위한 어떤 운동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심지어 여가부에서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자기들이 여러 가지 공격을 받으니까 쓰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 하는. 저는 정말 이런 사회에서 도대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미론적인 것이 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도대체 왜 이상한 단어로 둔갑을 하게 된건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것들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보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지 않은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어진 시간은 다 끝났고요. 여러 가지 하시고 싶은 말씀들 나누시고. 또 우리 방송이나 신문사에 계신 분들도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으실 것 같고 디펜스를 하고 싶으신 분도 많이 있으실 거 같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사나 뉴스 같은 것들을 쓰다보면 시간과의 싸움이니깐, 아까 시청률도 말씀하셨는데 시청률도 사실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산과 경제성을 고려하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조금 더 생

각해보고 하는, 스스로 자기를 검열, 검열이라고 하기보다는 자기 교육? 셀프 에듀케이션, 자기 비판, 그런 것들을 하는. 미디어 종사자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하는 희망사항으로 이 모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각자 연락을 하셔서 기자분들이나 PD분들에게 연락을 하셔가지고 의견을 개진해주시면 아까 그런 비판도 더 좋다고 했으니 서슴없이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긴시간 굉장히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모니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힘을 많이 들였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시민들이 눈에 비판적인 어떤 레이저를 쏘면서 미디어를 감시해야지만 조금 더 미디어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